

016/200

# 新 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여러분 다 푸셨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무엇일까요?

충분히 고민하고, 답을 하나 정한 뒤, 뒷장으로 갑니다.

**토지**

##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 소설 토지

#### S1. 줄거리. 초반부 인 사 배 세팅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조준구 홍씨	못 됨		서희 유산 가로 챔
삼수	못 됨		조준구 지시 마을 사람 착취
윤보	판단 불가		의병 자금 준비 습격 준비
서희	유산 빼앗김		
최참판			

#### S2. 삼수의 설득과 윤보의 걱정, 만류, 삼수 불안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삼수	기회주의	자신의 안위 걱정	윤보 설득 자신의 결백 주장
윤보	의로움	삼수 걱정	삼수 돌려보냄
조준구	친일파		삼수의 평가

#### S3. [A] 습격 장면

#### S4. 종락 줄거리. 삼수가 조준구 홍씨 살려 줌

#### S5. 홍씨의 화풀이. 습격을 서희에게 누명씌움

#### S6. [B] 홍씨의 일방적 폭행, 서희의 반응과 성격변화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홍씨	못 됨		서희 폭행
봉순이	서희 보좌		홍씨 말림 서희 자살 말림
서희	소극 -> 복수 성격 변화	수치심. 자살 생각.	홍씨에게 모독 당함

#### S7. 서희가 말로 홍씨 헐박

#### S8. 서희가 길상이 원망. 반복

#### S9. 조준구가 자신을 살려준 삼수에게 습격 누명을 씌움

전체 관통하는 '습격' 사건을 바탕으로 => 16번 17번

인물의 성격, 갈등 원인에 집중 => 17번 18번

깔끔하게 답!

[앞부분 줄거리] 조준구와 아내 흥 씨는 서희가 물려받아야 할 최 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채고, 하인 삼수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을 착취한다. 한편, 윤보는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는데 삼수가 찾아온다.

수능 국어 소설 지문의 가장 큰 특징.

첫 부분, 인물 사건 배경 세팅됩니다.

따라서, 첫 부분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줄거리로 제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읽어보니, 쉽지 않습니다.

조준구

흥씨

서희

최참판

삼수

윤보

벌써 6명의 인물에

1. 재산 가로채고

2. 사람들 착취하고

3. 습격 준비 중에

4. 삼수가 찾아오는

4가지 사건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에 따라 접근한다면,

문제 난이도는 정말 너무나도 쉽습니다.

“아무리 그리 시치미를 떼 쌓아도 알 만치는 나도 알고 있지 않겠소. 머 내가 휘방을 놓자고 찾아온 것도 아니겠고,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서 온 건데 너무 그러지 마소. 한마디로 딱 찢아서 말하겠소. 왜놈들하고 한통속인 조가 놈을 먼저 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오. 고방에는 곡식이 썩을 만큼 쌓여 있고 안팎으로 쌓인 기이 재물인데 큰일을 하자 카문 빈손으로 우찌 하겠소. 그러니 왜놈과 한통속인 조가부터 치고 보문 ㉠ 꿩 목고 알 목는 거 아니겠소.”

삼수가 왜 찾아왔나 했더니,

친일파 조준구를 같이 조지겠다고 합니다.

“야아가 참 제정신이 아니구마는.”

“하기사 전력이 있으니께 나를 믿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소. 하지마는 두고 보문 알 거 아니오?”

자기 평소 행실 때문에, 믿지 못할 거라 생각.

그래서 결백을 주장하는데

“야, 야 정신 산란하다. 나는 원체 입이 무겁고 또 초록은 동색이더라도 내 안 들은 거로 해 둘 기니 어서 돌아가거라. 공연히 신세 망칠라.”

윤보는 삼수 등을 믿다.

윤보의 성격이 나오는군요.

사실 삼수를 이용하면 훨씬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삼수 인생 조지지 말라고 배려하는 모습.

참... 윤보... 너란 녀석... 착하기 그지 없구나

“이거 놓으소. 누가 안 가까 바 이려요? 지내 놓고 보문 알 기니께요. 내가 머 염탐이라도 하러 온 줄 아요? 흥, ㉡ 그랬을 양이른 벌써 조가 놈한테 동네 소문 고해바쳤일 기고 읍 내서 순사가 와도 몇 놈 왔일 거 아니오.”

큰소리로 지껄이며 삼수는 언덕을 내려간다.

삼수가 정말 윤보를 도우려고 저렇게 결백을 주장하나 싶죠?

‘벌어목을, 이거 다 된 죽에 코 빠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날을 다가가겠다.’

하... 아니군요.

결국 기회주의자 삼수였습니다.

[A] 삼수가 왔다 간 다음 날 밤, 자정이 넘었다. 칠혹의 밤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타작마당에 장정들이 모여들었다. 마을에서는 개들이 짖는다. 불은 켜지 않았지만 집집에선 인적기가 난다. 언덕 위의 최 참판택은 어둠에 묻혀 위엄에 찬 그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타작마당에서는 윤보의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평소보다 얇게 울리고, 이윽고 횃불이 한 개 두 개 또 세 개, 계속하여 늘어나고 그 횃불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A] 습격 장면입니다.

줄거리에도 나왔듯,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다시 이는 중략 부분 줄거리로 이어지고,

[중략 부분 줄거리] 윤보 일행이 습격하자 조준구와 흥 씨



하면 네놈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로되 으음, 능지처참할 놈 같으니라구. 이놈! 어디 한번 죽어 바라!”

“나, 나으리! 꾸, 꿈을 꾸시는 겁니까? 이, 이 목심을 건지 디린 이, 이 삼수 놈을 말입니다!”

그러나 조준구는 바로 저놈이 폭도의 앞잡이었다고 이미 한 말을 다시 강조할 뿐이다. 물론 이 경우 **폭도란 의병을 일** **습격** **시키는 것이다.**

**습격**  
-박경리, 「토지」-

삼수에게 누명을 씌우고, 끝까지 습격이라는 사건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면? 문제는? 개념 적용 보다는 ‘내용’ **정보가치 높은 평가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중심**으로 문제 접근하라 말씀드렸습니다!

1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습격 장면, [B]는 그 습격으로 화가 난 홍씨가 화풀이를 서희에게 하며, 서희와 갈등이 폭발, 서희의 내면심리와 봉순이의 성격이 제시되는 장면이었습니다.**

- ① [A]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은밀한** 행동 양상을 드러낸다.

비유적 표현 개념어에 집중 하지 말구요!

습격 장면이니 은밀해야죠!

- ② [B]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행동의 격렬함**을 강조한다.

역시, 개념 음성 상징어 찾지 말구요!

**갈등 폭발 장면이었으니 당연히 행동이 격렬하겠죠!**

- ③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B]에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나타난다.

역시 습격 장면, 당연히 관찰, 내면심리 묘사.

여러분... 수십가지의 개념 다 확인 못합니다. 기억도 없고. 그때 그때 발췌독 하는 과정에서 실수 유발됩니다!

- ④ [A]는 시제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장면에 긴장감을 더하고, [B]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인물 간 갈등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제발... 과거형 현재형 찾다가 시간, 실수 모두 손해보지 말고!

습격이니 긴장감

갈등 폭발! 모두 확인!

- ⑤ [A]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B]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원인**을 드러낸다.

응?

그런데 인물 간 대립 원인은

습격 아니었나요?

[B]는 그런 장면이 아닌디???

역시 정답!  
가장 정보가치 높았던 ‘습격’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  
그리고.

1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삼수는 자신의 말대로 하면 ‘조가’도 제거할 수 있고 윤보의 계획도 숨길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 ② ㉡ : 삼수는 자신이 윤보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어 이를 동네에 알리겠다며 윤보를 협박하고 있다.
- ③ ㉢ : 홍 씨는 자신을 **습격했던 무리를 ‘화적 놈’**이라 부르며 서희가 그들과 공모했다고 몰아가고 있다.
- ④ ㉣ : 서희는 홍 씨에게 홍 씨의 뻔뻔함과 영악함이 도를 넘었음을 경고하고 있다.
- ⑤ ㉣ : 조준구는 지난밤 자신을 습격했던 삼수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

역시! 가장 정보가치 높았던 ‘습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바로 정답으로 이어지네요!

놀랍죠?

소설 자체는 어려운데,

문제는 이렇게 쉽다니...

왜죠? 평가원이 원하는 형태의 규격으로 정보처리 했으니, 엇갈림 없이 딱 떨어지는 접근이 됩니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토지」는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수난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문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는데,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친일 세력, 저항 세력,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때로 협력하고 때로 대립하면서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 ①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던 윤보가 삼수의 제안을 듣지 않은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윤보는 삼수와 협력 관계를 거부한 것이군.
- ② 타작마당에 모인 장정들이 햇불을 들고 윤보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조준구로 대표되는 친일 세력과 대립하고 있군.
- ③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아,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문 질서가 흔들리며 봉순이와 서희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고 있군.
- ④ 흥 씨의 모욕에 죽을 생각을 했던 서희가 흥 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한 것으로 보아, 흥 씨와 서희는 대립 관계를 이어 가겠군.
- ⑤ 윤보에게 조준구를 치라고 했던 삼수가 조준구의 목숨을 구해 줬다는 것으로 보아, 조준구와 삼수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군.

봉순이는 서희를 계속해서 보살피는 성격을 보임. 답3번!

여러분...

이제, 제가 보기부터 보지 말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보기는 보기 문제일 뿐이에요.

보기로 접근의 관점을 주고 싶었다면, 이미 출제된 비평문 형태로 지문에 묶었겠죠.

이렇게 출제된 것은,

오히려 보기가,

작품 감상에 잘못된 관점을 심어 줄 수 있어요.

물론 문학 작품 감상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보기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접근은 이런 문제들에서 터져나갈 수 있는 리스크를 항상 갖게 해요.

저와 같이

평가원이 원하는 형태의 정보처리 규격에 맞게 정보를 처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현행 수능의 유일한 답입니다.

2014 개정수능 이후,

<2017~ 확립된, 新수능국어의 특징>

서사 장르,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

- 1. 주제 : 서사, 줄거리
- 2.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
- 3. 인물 = 성격 (+ 내면심리)
- 4. 특이한 소재, 배경, 전개방식(개념)

\*\*\*첫부분 인물, 사건, 배경 세팅

\*인물이 많으면 => 주인공 + 주인공 서사 집중

다시 한 번, 숙지 합니다.

다음 지문은 2020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 오답률 3위 문제가 있는 지문인데...

일단 풀어보시고,

그 뒤 문제까지 이어서 풀어보세요. 특히 2019학년도 수능 45번 문제에 집중하세요!

연결해 풀라는 의도도 생각해보시고요!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조준구와 아내 홍 씨는 서희가 물려받아  
야 할 최 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채고, 하인 삼수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을 착취한다. 한편, 윤보는 의병 자금을 확보하  
기 위해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는데 삼수가 찾아온다.

"아무리 그리 시치미를 떼 쌓아도 알 만치는 나도 알고  
있이니깐요. 머 내가 웨방을 놓자고 찾아온 것도 아니었고,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서 온 건데 너무 그러지 마소. 한  
마디로 딱 찢라서 말하겔소. 왜놈들하고 한통속인 조가 놈  
을 먼저 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오. 고방에는 곡식이 썩을 만  
큼 쌓여 있고 안팎으로 쌓인 기이 재물인데 큰일을 하자 카  
른 빈손으로 우찌 하겔소. 그러니 왜놈과 한통속인 조가부터  
치고 보든 ㉠ 꿩 목고 알 목는 거 아니겔소."

"야아가 참 제정신이 아니구마는."

"하기사 전력이 있으니께 나를 믿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  
니겔소. 하지마는 두고 보든 알 거 아니오?"

"야, 야 정신 산란하다. 나는 원체 입이 무겁고 또 초록은  
동색이더라도 내 안 들은 거로 해 둘 기니 어서 돌아가거라.  
공인히 신세 망칠라."

윤보는 삼수 등을 민다.

"이거 놓으소. 누가 안 가까 바 이리요? 지내 놓고 보든 알  
기니깐요. 내가 머 염탐이라도 하러 온 줄 아요? 흥, ㉡ 그랫  
을 양이른 벌써 조가 놈한테 동네 소문 고해바쳤일 기고 읍  
내서 순사가 와도 몇 놈 왔일 거 아니오."

큰소리로 지껄이며 삼수는 언덕을 내려간다.

'빌어먹을, 이거 다 된 죽에 코 빠지는 거 아닌지 모르겔네.  
날을 다가야겠다.'

[A] 삼수가 왔다 간 다음 날 밤, 자정이 넘었다. 칠혹의 밤  
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타작마당에 장정들이  
모여들었다. 마을에서는 개들이 짖는다. 불은 켜지 않았지  
만 집집에선 인적이기 나다. 언덕 위의 최 참판택은 어둠  
에 묻혀 위엄에 찬 그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타작마당에  
서는 윤보의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평소보다 알게 울리  
고, 이윽고 햇불이 한 개 두 개 또 세 개, 계속하여 늘어  
나고 그 햇불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중략 부분 줄거리] 윤보 일행이 습격하자 조준구와 홍  
씨는 사당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삼수의 도움을 받는다. 윤  
보 일행이 떠나고 날이 밝았다.

"서희 이, 이년! 썩 나오지 못할까!"

나오길 기다릴 흥 씨는 아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서  
희를 끌어 일으킨다.

"네년 소행인 줄 뉘 모를 줄 알았더냐? 자아! 내 왔다! 이  
제 죽여 보아라! ㉢ 화적 놈 불러들일 것 없이!"

나오지 않는 목청을 뽑으며, 거품을 입가에 묻어 나온다.

"자아! 자아! 못 죽이겠니?"

손이 뺨 위로 날았다. 앞가슴을 잡고 와락와락 흔들어  
댄다. 서희 얼굴이 흠빛으로 변한다. 울고 있던 봉순이

"왜 이러시오!"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니 실 뜰어지는 소리와 함  
께 흥 씨 손에 웃고름이 남는다.

"감히 누굴! 감히!"

하다가 별안간 방에서 뛰쳐나간다. 맨발로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린다.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애기씨!"

울부짖으며 봉순이 뒤쫓아 간다.

"죽어라! 죽어! 잘 생각했어! 어차피 너는 산복숨은 아  
니란 말이야! 죽고 남지 못할 거란 말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서희는 연못가에서 걸음을 뚝  
멈춘다. 돌아본다. 흠빛 얼굴에 웃음이 지나간다.

"내가 왜 죽지? 누구 좋아하라고 죽는단 말이냐?"

나직한 음성이다. 흥 씨 눈을 똑바로 주시한다.

"㉣ 사람 영악한 것은 범보다 더 무섭다는 말 못 들으셨소?"

여전히 나직한 음성이다.

"무서우면 어떻게 무서워! 우리 내외한테 비상을 먹이겠다  
그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눈물도 안 나오는 헛울음을 울더니 이번  
에는 봉순에게 달려들어 머리끄덩이를 꺼두르고 한 소동을 피  
운다. 읍내서 헌병, 순사들이 왔다는 말에 흥 씨는 겨우 본체  
로 돌아갔다. 서희는 찢겨진 저고리를 내려다본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눈이 부어오른 봉순이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찾았지마는 사당 마릿장 밑에 숨은  
줄이야 우, 우찌 ..... 으흐흐흐."

되풀이 입술을 떨면서 서희는 말했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결백  
주장

윤보  
성격

삼수격정

결백  
주장

삼수 성격  
기회주의자

습격  
장면

성격변화  
입체적 인물

달려온 헌병들에게 맨 먼저 당한 것은 삼수다.

"나, 나으리! 이, 이기이 우찌 된 영문입니까!"

헌병이 총대를 들이대자 겁에 질린 삼수는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되었거나 믿는 구석이 있어서 조준구를 향해 도움을 청하였다.

"이놈! 이 찢어 죽일 놈 같으니라구!"

무섭게 눈을 부릅뜬 조준구를 바라본 삼수 얼굴은 일순 백지장으로 변한다.

"예? 머, 머, 머라 켜십니까?"

"이놈! 네 죄를 몰라 하는 말이나? ㉠간밤에 감수한 생각을 하면 네놈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르되 으음, 능지처참할 놈 같으니라구. 이놈! 어디 한번 죽어 보라!"

"나, 나으리! 꾸, 꿈을 꾸시는 겁니까? 이, 이 목심을 건지 디린 이, 이 삼수 놈을 말입니다!"

그러나 조준구는 바로 저놈이 폭도의 앞잡이었다고 이미 한 말을 다시 강조할 뿐이다. 물론 이 경우 폭도란 의병을 일컫는 것이다.

습격  
누명

습격  
-박경리, 「토지」-

1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은밀한 행동 양상을 드러낸다. **습격장면** **갈등폭발**
- ② [B]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행동의 격렬함을 강조한다.
- ③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B]에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나타난다. **습격**
- ④ [A]는 시제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장면에 긴장감을 더하고, [B]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인물 간 갈등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습격**
- ⑤ [A]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B]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원인을 드러낸다. **습격**

대립의 원인은 습격인데... 습격은 [B] 장면이 아님!

1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삼수는 자신의 말대로 하면 '조가'도 제거할 수 있고 윤보의 계획도 숨길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 ② ㉡ : 삼수는 자신이 윤보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어 이를 동네에 알려줬다며 윤보를 협박하고 있다.
- ③ ㉢ : 흥 씨는 자신을 습격했던 무리를 '화적 놈'이라 부르며 서희가 그들과 공모했다고 몰아가고 있다.
- ④ ㉣ : 서희는 흥 씨에게 흥 씨의 뻔뻔함과 영악함이 도를 넘었음을 경고하고 있다.
- ⑤ ㉤ : 조준구는 지난밤 자신을 습격했던 삼수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

Day 1 (원로서)

글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 바로 전체를 관통하는 사건인 '습격'을 파악해서 집중했다면 정답 선지가 입체적으로 보임!

1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토지」는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수난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는데,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친일 세력, 저항 세력,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때로 협력하고 때로 대립하면서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 ①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던 윤보가 삼수의 제안을 듣지 않은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윤보는 삼수와 협력 관계를 거부한 것이군.
- ② 타작마당에 모인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윤보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조준구로 대표되는 친일 세력과 대립하고 있군. **봉순이 성격 파악 : 지문 - 서희 보좌. 걱정**
- ③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아,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가 흔들리며 봉순이와 서희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고 있군.
- ④ 흥 씨의 모욕에 죽을 생각을 했던 서희가 흥 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한 것으로 보아, 흥 씨와 서희는 대립 관계를 이어 가겠군.
- ⑤ 윤보에게 조준구를 치라고 했던 삼수가 조준구의 목숨을 구해 줬다는 것으로 보아, 조준구와 삼수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군.